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감 '조국 대전'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담당... 사모펀드 등 여야 난타전 예고 10일 교육위, 조 장관 자녀 인턴 활동·장학금 의혹 등 도마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각각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했다는 입장에서 '조국 대치전'은 더욱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민생 국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잇단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공세에 대해선 강하게 응수할 태세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파면'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방침이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쳐 반(反)조국 여론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 퇴진'이 민생 쟁점의 출발점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동시에 문재 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장외 세 대결에서 한발짝 물러나 원내 정당으로서 국감에 더욱 적극할 방침이다.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는 광장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린 내부 갈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위에서 열리는 서울대 국감도 주목된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파로 갈린 내부 갈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제정(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와 해법을 제시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

유승민 "15명 의원 뜻 모이면 탈당"

'변혁, 청년과의 혁신 간담회' 브리핑... "안철수, 힘 보탬 것"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는 6일 "15명 의원들의 뜻만 모이면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혁, 청년과의 혁신 간담회' 중간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이 내분과 갈등에 휩싸여,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당권파 15명 의원의 뜻이 일치되면 안철수 전 의원의 동참 여부와 관계없이 탈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대표는 "선택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안 전 의원이 미국행을 택한 것이 곧 '변혁'의 동참 요청을 거부한 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안 전 의원이) 미국에 가지마자 국내 정치에 복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지만, 바른미래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혁'의 노력에 마땅히 힘을 보태주시리라 본다. 기다려 보겠다"고 정계 복귀설을 일축한 안 전 의원에 게 재차 "리브풀"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유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 광장에서 찬반이 나뉜 것과 관련해선 "3년 전 촛불집회나 지금 광화문 집회나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조국 문제에 대해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듯한 집회가 열리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무조건 진영싸움으로 가고 있다"며 "진영 싸움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총선을 치르려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서 이상민 공동위원장이(왼쪽 네번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복귀설 선긋기

SNS에 메시지... "이달부터 미국 대학서 연구"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신의 정치 재개가 임박했다는 향간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치열한 미래 대비 혁신 현장을 다

니며 우리의 미래와 먹거리에 대해 고민했다"며 "미국에서는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베를린 마라톤과 미래 교육 프로젝트인 '러닝 5.0' 발표로 독일에서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했다"며 "미국에서도 대학 연구와 미세먼지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출간되는 자신의 새 저서와 관련해서는 "독일을 떠나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與 '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검찰개혁특위 논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구체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과 별건수사, 심야·철야수사,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조사 등을 통제할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제2소위원장을 맡은 이철희 의원 "피의사실공표는 역사적으로 공과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나 정치적 남용 측면도 있다"며 "입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합의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법무부와 검찰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제도가 필요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검찰 옵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의 이의 제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검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하겠지만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인 이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는 오는 16일께 법무부와 당정협의의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에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여 "관행 개선" vs 야 "몰타기"

검찰이 지난 4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 검찰 수사관행이 개선됐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교수 특혜 논란에 대한 '몰타기'가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혜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해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의 나쁜 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이강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정 교수 비공개 소환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몰타기 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檢 "정경심 교수 조만간 3차 소환"

2차 조사 15시간만에 귀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첫 소환 이틀 만인 지난 5일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오후 4시께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정서를 나눴다.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5일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재검토

가 이뤄졌다.

정 교수에 대한 전체 2차 조사 시간은 15시간 가까이 됐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정식 추가 조사는 채 3시간이 안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옹호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샅샅이 따져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입회 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은 정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주택·아파트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올리모텔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전원주택적 함평군 월아면 예덕리 대지 235㎡ 2100만원
- 임대 게임동 이마트 부근 2층 88평 3층 86평 복층 사용 가능 2천에 230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무안 동탄면 영산정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중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 건물

- 유동 NC백화점 부근 상업지 3306㎡ 신축 적합 건물에서 월 170수입 교환원 6억
- 유동 신축카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물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 물건

- 동구 산수동5가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곡성군 목서동면 계획관리지역 234044㎡ 다용도·법인이전 10억6천
- 강진군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층 2동 은행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중층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